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Pilot Project: With Youth Users*

Chang, Yo Ok¹⁾ · Lee, Euntaek²⁾ · Cho, Miyoung³⁾

¹⁾Visiting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²⁾Professorial Lecturer, Myongji College

³⁾Adjunct Professor, Myongji College

Purpose: The city of Seoul conducted youth centers exclusive hours and daily pilot project to support various activities for Youth.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the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Methodology: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youth centers exclusive hours and daily, a survey and reflection diary analysis were conducte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534 adolescents who used the youth centers exclusive hours and daily pilot project. The reflection diary analysis was conducted on 28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youth centers exclusive hours and daily pilot program.

Findings: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pilot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the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exclusive hours and daily pilot project spent more time at the youth center than at the beginning of the pilot project,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also increased rapidly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the pilot project. Second, positive changes were found in the use of leisure time, gaining various experiences, career and aptitude exploration, relieving stress, and happiness in lif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domain were also positive. Thir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flection diary, it was found to be helpful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on, interpersonal skills, self-growth,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decision.

Conclusions: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nnual expansion, the preparation of standards for smooth operation and a linkage plan between youth centers, and the role of public services for after school leisure time, preparation and effort of the youth center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Keywords: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Project, Performance Analysis, Youth Activities, Youth Program

* This study is a revised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2021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pilot project.

Corresponding Author: Cho, Miyoung

Adjunct Professor, Myongji College

134, Gajwa-ro, Seodaemun-gu, Seoul, 03656,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2-4316-0536>

Email: chomy@mjc.ac.kr

Received: February, 28, 2022 **Revised:** March, 28, 2022 **Accepted:** March 28, 2022 **Publication:** March, 31, 2022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연구: 청소년 이용자를 중심으로*

장여옥¹⁾ · 이응택²⁾ · 조미영³⁾

¹⁾광운대학교, 아동청소년전공 초빙교수

²⁾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상담과 강의전담교수

³⁾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상담과 겸임교수

목적: 서울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사업을 3개의 센터에서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성찰일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3,53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찰일지 분석은 전용시간·요일제 시범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2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청소년센터에서 보냈고, 만족도 또한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여가시간 활용, 다양한 경험 쌓기, 진로·적성 발견, 스트레스 해소, 삶의 행복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 개선, 대인관계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청소년 시설의 이해도에 대한 환경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성찰일지를 통해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성과분석을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 형성 및 기술 습득 그리고 자기성장의 기회와 진로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사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서울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에 대한 연차별 확대 필요,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청소년센터 간의 연계 방안 마련, 청소년의 방과후 여가시간에 대한 공적 서비스의 역할 확대, 전용시간·요일제 운영을 위한 청소년센터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성과분석, 청소년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 본 논문은 「2021 청소년 전용시간·요일제 시범운영 성과분석」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교신저자: 조미영

명지전문대학

주소: 036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ORCID: <https://orcid.org/0000-0002-4316-0536>

E-mail: chomy@mjc.ac.kr

투고일: 2022. 02. 28.. 심사일: 2022. 03. 28.. 게재확정일: 2022. 03. 28. 발행일: 2022. 03. 28.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학부모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지역사회에 위치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대학입시가 중요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센터에서는 학교 밖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미래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융합형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창의력, 협업 등을 함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 참여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참여한 활동과 희망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관계형성역량, 협동역량, 시민성역량, 진로역량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자율동아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지속성이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의사소통과 협업역량이 높았으며[3], 청소년활동 참여가 소극적인 고등학생보다는 보통 수준의 고등학생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

법적인 측면에서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4조의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이용대상·나이·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3항의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청소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총 21개소의 시립청소년센터가 있으며, 청소년센터의 목적사업 비중은 평균 61% 수준이다[5]. 자립형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보다는 운영비 확보를 위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활용하여 성인과 유아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치중하면서 청소년 서비스 및 이용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고교학점제 등 사회적·교육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센터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으로 센터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여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기성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울시립청소년센터는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이용자는 456만 명, 청소년 이용자는 389만 명으로 2018년 전체 이용률 1,283만 명, 청소년 이용자 931만 명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6, 7].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청소년시설의 휴관, 청소년 휴식 및 여가공간의 부족 등으로 청소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활동권, 여가권, 학습권 등을 침해당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시설의 적절한 운영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립청소년센터는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을 확보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익사업 운영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의 센터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갖추도록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특정시간 혹은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공간을 청소년을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로 2021년도에는 서울시의 청소년센터 중 3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연차별 확대 가능성 및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센터 운영방식 등의 실천적 및 정책적 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이용 및 만족도, 재참여 의사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참여로 개인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의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에 참여한 청소년의 성찰일지를 통한 성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2021년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의 기능 회복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하고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2018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실행계획」의 관련 정책 사항 이행 등을 위해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서비스 개선과 센터 운영을 위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사업을 실시하였다[5].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사업은 전용시간제와 전용요일제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제란 주중 오후시간과 토요일에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청소년센터 전용요일제는 매주 토요일 또는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월 1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용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시립은평청소년센터가 참여하였으며,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5]. 시범운영에 참여한 센터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3세부터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318 Y.O.P(Youth Only Project)’ 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전용시간 · 요일제를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전용공간과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 유형별로 다양한 활동과 체험거리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성장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습지원, 미디어 리더러시, 진로개발 등의 역량개발, 현실게임창작소, 유튜브창작소, 디지털 프로그램 등의 언택트 프로젝트, 소그룹 수영, 스포츠 및 예술문화활동, 방과후 활동 등의 문화지역연계와 씬, 놀이, 동아리, 콘텐츠 제작 공간 등의 자유공간이용으로 이루어졌다[8].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온(종일 모두)다!’ 사업을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였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성인 및 유아 중심의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청소년 서비스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변화하고자 토요일을 청소년 전용시간 · 요일제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체육활동, 동아리, 이벤트 등의 건강 프로그램, 초등학교 연계 생존수용 및 특성화 중심의 생존 프로그램,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학습 · 체육 · 체험활동의 초등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9]. 시립은평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열린공간 몽땅 아지트 프로젝트’를 매월 첫 번째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만족도 및 놀이문화 트렌드를 조사하여 청소년 수요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시립청소년센터의 고유 운영목적에 강화하고 청소년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악기교실, 요리교실, 웹툰체험, 청소년헌법재판소, 체육교실, 스피치교실, 미술교실, 공예교실 등의 체험활동, 공감콘서트, 창작춤대회, 프리마켓, 진로박람회 등의

테마활동, 카페, 오락실, 댄스연습, 보드게임방, 동아리 등의 아지트활동이 실시되었다[10].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지금까지는 목적사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병행 운영하면서 청소년 대상 공공시설이라는 기능적 역할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센터 전용시간·요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업의 확대는 곧 청소년 공공시설로서의 기능 확대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성과분석은 향후 청소년시설의 방향을 탐색할 뿐 아니라 청소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소년활동의 효과

청소년센터는 학교 내외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곳으로 청소년센터 자체에서 체험활동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학교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센터에서 제공되는 활동으로는 건강·보건활동,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봉사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자기계발활동, 환경보존활동, 교류활동으로 구분되고 있으며[2], 그 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동체의식과 행복감에 긍정적이며[4, 15], 관계형성역량, 협동역량, 시민성역량, 진로역량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 그리고 청소년기 적응에 주 보호요인으로 꼽히는 자아존중감[17], 자아탄력성[11]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중단적 효과를 연구한 김민선과 손병덕[12]은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의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체험활동 만족은 중학교 2-3학년 그리고 고등학생 시기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원정은과 정혜원[14]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지연효과를 살펴보고, 일부 지연효과를 입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진로활동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꼭 필요한 활동임을 밝히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청소년활동의 양과 질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활동을 많이 참여하였는가 아니면 청소년활동을 통해 얼마나 만족했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의견이다.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활동 참여횟수보다는 만족도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17], 참여횟수 및 이용시간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이용시간과 만족도를 통해 그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강북청소년센터, 성북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5월, 8월, 11월 총 3차례에 걸쳐 오프라인과 온라인 네이버폼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자는 청소년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청소년은 각 차시에 한 번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53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찰일지에 참여한 인원은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8명으로 총 28명이었다.

2. 측정도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의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 개발은 청소년활동 및 참여 실태 조사의 선행연구[1, 2, 13]를 활용하여 이용시간(1문항), 만족도(4문항), 재참여 의사(1문항)를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의 개인적 · 환경적 영역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선행연구[1, 2, 4, 14, 15]를 활용하여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개인적 영역(5문항)은 다양한 경험, 여가시간 활용, 스트레스 해소, 삶의 행복 증진, 진로 및 적성 발견을 살펴보았으며, 환경적 영역(5문항)은 부모와의 관계 개선, 대인관계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청소년시설의 이해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성찰일지는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운영을 통해 도움이 된 점과 생각 및 태도의 변화 경험을 질문하여 청소년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완성된 설문문항과 성찰일지의 주관식 질문지는 청소년 관련 학계 및 청소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과분석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음으로 초 · 중 · 고등학생 청소년 각 1명을 대상으로 완성된 설문문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응답이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시범운영 성과분석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차례에 걸친 시간 추이에 따른 성과분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이용시간, 만족도,

개인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을 분석하였다. 성찰일지 분석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작성한 일지를 토대로 연구자 1인이 주도적으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참여자가 작성한 내용 중 공통된 사항들을 반복적으로 찾아내어 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내는 자료분석 방법으로 질적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16].

IV. 연구결과

1. 청소년 이용자의 설문 응답을 통한 성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 조사대상자 854명 중 남자 청소년은 431명(50.5%)이었고, 여자 청소년은 423명(49.5%)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 이하가 379명(44.4%)이었고, 14~16세는 305명(35.7%), 17~19세는 170명(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대상자 1,411명 중 남자 청소년은 661명(46.8%)이었고, 여자 청소년은 750명(53.2%)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 이하가 549명(38.9%)이었고, 14~16세는 435명(30.8%), 17~19세는 427명(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대상자 1,269명 중 남자 청소년은 670명(52.8%)이었고, 여자 청소년은 599명(47.2%)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 이하가 427명(33.6%)이었고, 14~16세는 443명(34.9%), 17~19세는 399명(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용 실태 영역

1) 이용시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2차와 3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 시기보다 더 오랜 시간을 청소년센터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시간미만’의 응답률이 34.5%에서 13.7%, ‘1시간이상에서 2시간미만’의 응답률은 33.4%에서 26.3%로 낮아졌다. 반면 ‘2시간 이상에서 3시간미만’의 응답률은 14.2%에서 21.7%, ‘3시간 이상에서 4시간미만’의 응답률은 6.7%에서 13.8%, ‘4시간이상’의 응답률은 11.2%에서 24.5%로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4시간이상 응답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2시간이상~3시간미만(24%)과 3시간이상~4시간미만(15.5%)의 응답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청소년센터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1차 전체		854	100.0
성별	남자	431	50.5
	여자	423	49.5
연령별	13세 이하	379	44.4
	14~16세	305	35.7
	17~19세	170	19.9
2차 전체		1,411	100.0
성별	남자	661	46.8
	여자	750	53.2
연령별	13세 이하	549	38.9
	14~16세	435	30.8
	17~19세	427	30.3
3차 전체		1,269	100.0
성별	남자	670	52.8
	여자	599	47.2
연령별	13세 이하	427	33.6
	14~16세	443	34.9
	17~19세	399	31.4

〈표 IV-2〉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참여자의 하루 이용시간 변화 추이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1차	34.5%	33.4%	14.2%	6.7%	11.2%
2차	13.7%	26.3%	21.7%	13.8%	24.5%
3차	14.4%	28.3%	24.0%	15.5%	17.8%
1·3차 간 증감	↓ 20.0%	↓ 5.10%	↑ 9.80%	↑ 8.80%	↑ 6.60%

2) 프로그램 만족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 긍정

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이 1.3%에서 0.8%로 낮아진 반면, ‘만족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1.6%에서 3.0%로 높아졌다. ‘만족함’에 대한 응답률은 58.4%에서 46.4%로 낮아졌으나 ‘매우 만족함’에 대한 응답률은 38.6%에서 49.8%로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3차 간 증감을 살펴보면, ‘전혀 만족하지 않음’과 ‘만족함’은 줄어들고 ‘매우 만족함’은 8.8%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변화 추이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1차	1.3%	1.6%	58.4%	38.6%
2차	0.8%	3.0%	46.4%	49.8%
3차	1.2%	3.3%	48.1%	47.4%
1·3차 간 증감	↓ 0.10%	↑ 1.70%	↓ 10.30%	↑ 8.80%

3) 재참여 의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에 다시 참가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재참여 의사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다시 참가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률은 증가하였고, 다시 참가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률은 줄어들었다. ‘있음’의 응답률은 88.2%에서 93.1%로 높아졌고 ‘없음’의 응답률은 11.8%에서 6.9%로 낮아졌다. 3차 조사결과 또한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있음’의 응답률은 93.1%에서 93.9%로 높아졌고 ‘없음’의 응답률은 6.9%에서 6.1%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재참여 의사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재참여 의사에 대한 변화 추이

구분	있음	없음
1차	88.2%	11.8%
2차	93.1%	6.9%
3차	93.9%	6.1%
1·3차 간 증감	↑ 5.70%	↓ 5.70%

다. 개인적 영역

1) 여가시간 활용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참여가 여가시간 활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도움정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0.6%에서 1.4%로 다소 높아졌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3.6%에서 2.8%로 다소 낮아졌다.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8.9%에서 40.8%로 낮아진 반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6.8%에서 55.1%로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도움이 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참여가 여가시간 활용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경험 쌓기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참여가 다양한 경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경험에 대한 도움정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이 0.7%에서 0.9%로 경미하게 높아지고,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9.3%에서 43.2%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8.4%에서 54.3%로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도움이 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고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참여가 다양한 경험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진로 · 적성 발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참여가 진로 및 적성 발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 및 적성 발견에 대한 도움정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2.8%에서 2.4%,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11.4%에서 6.2%,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7.2%에서 43.8%로 낮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38.6%에서 47.6%로 9%가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

음’, 그리고 ‘도움이 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고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가 진로 및 적성 발견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참여가 스트레스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도움정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1.6%에서 2.2%로 다소 높아졌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4.2%에서 2.3%로 다소 낮아졌다.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4.5%에서 38.8%로 낮아진 반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9.6%에서 56.8%로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도움이 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삶의 행복 증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참여가 삶의 행복 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삶의 행복 증진에 대한 도움정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0.8%에서 2.1%로 다소 높아졌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4.2%에서 3.1%로 다소 낮아졌다.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9.4%에서 43.8%로 낮아진 반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5.6%에서 51.0%로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도움이 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고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가 삶의 행복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제시한 개인적 영역의 여가시간 활용, 다양한 경험 쌓기, 진로·적성 발견,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삶의 행복 증진에 대한 통계 분석표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IV-5〉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참가자의 개인적 영역 변화 추이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여가시간 활용	1차	0.6%	3.6%	48.9%	46.8%
	2차	1.4%	2.8%	40.8%	55.1%
	3차	1.0%	1.6%	43.3%	54.1%
	1·3차 간 증감	↑ 0.40%	↓ 2.00%	↓ 5.60%	↑ 7.30%
다양한 경험 쌓기	1차	0.7%	1.6%	49.3%	48.4%
	2차	0.9%	1.6%	43.2%	54.3%
	3차	0.7%	0.6%	46.5%	52.2%
	1·3차 간 증감	0.00%	↓ 1.00%	↓ 2.80%	↑ 3.80%
진로 · 적성 발견	1차	2.8%	11.4%	47.2%	38.6%
	2차	2.4%	6.2%	43.8%	47.6%
	3차	1.4%	7.2%	47.3%	44.1%
	1·3차 간 증감	↓ 1.40%	↓ 4.20%	↑ 0.10%	↑ 5.50%
스트레스 해소	1차	1.6%	4.2%	44.5%	49.6%
	2차	2.2%	2.3%	38.8%	56.8%
	3차	1.3%	3.2%	40.7%	54.8%
	1·3차 간 증감	↓ 0.30%	↓ 1.00%	↓ 3.80%	↑ 5.20%
삶의 행복 증진	1차	0.8%	4.2%	49.4%	45.6%
	2차	2.1%	3.1%	43.8%	51.0%
	3차	1.3%	3.3%	47.0%	48.3%
	1·3차 간 증감	↑ 0.50%	↓ 0.90%	↓ 2.40%	↑ 2.70%

라. 환경적 영역

1) 부모와의 관계 개선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참여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4.3%에서 1.9%,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13.2%에서 11.4%,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56.4%에서 50.4%로 낮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26.0%

에서 36.3%로 10.3%가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고 ‘매우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로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인 관계 형성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참여가 대인관계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도움정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1.2%에서 1.1%,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8.7%에서 48.0%로 경미하게 낮아졌다.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이 8.8%에서 4.1%로 낮아진 반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41.3%에서 46.8%로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도움이 되지 않음’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고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가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참여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생겼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1.4%에서 1.9%로 경미하게 높아졌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13.7%에서 8.0%, 낮아졌다.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54.6%에서 46.2%로 낮아진 반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30.3%에서 43.9%로 13.6%가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도움이 되지 않음’과 ‘도움이 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의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고 ‘매우 도움이 됨’의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 시설의 이해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참여가 청소년시설의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시설의 이해에 대한 도움정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0.5%에서 0.9%로 경미하게 높아졌으나 ‘도움 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3.2%에서 1.6%로 낮아졌다.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57.6%에서 45.6%로 낮아진 반면,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응답률은 38.8%에서 51.8%로 13%가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도움 되지 않음’과 ‘도움 됨’에서 줄어든 응답이 ‘매우 도움 됨’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는 2차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참여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제시한 환경적 영역의 부모와의 관계 개선, 대인관계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청소년 시설의 이해도에 대한 통계 분석표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IV-6>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참여자의 환경적 영역 변화 추이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부모와의 관계 개선 도움	1차	4.3%	13.2%	56.4%	26.0%
	2차	1.9%	11.4%	50.4%	36.3%
	3차	1.8%	8.4%	48.4%	41.4%
	1·3차 간 증감	↓ 2.50%	↓ 4.80%	↓ 8.00%	↑ 15.40%
대인관계 형성 도움	1차	1.2%	8.8%	48.7%	41.3%
	2차	1.1%	4.1%	48.0%	46.8%
	3차	1.3%	3.5%	52.3%	42.9%
	1·3차 간 증감	↑ 0.10%	↓ 5.30%	↑ 3.60%	↑ 1.60%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도움	1차	1.4%	13.7%	54.6%	30.3%
	2차	1.9%	8.0%	46.2%	43.9%
	3차	2.2%	6.6%	45.2%	46.0%
	1·3차 간 증감	↑ 0.80%	↓ 7.10%	↓ 9.40%	↑ 15.70%
청소년시설의 이해도 도움	1차	0.5%	3.2%	57.6%	38.8%
	2차	0.9%	1.6%	45.6%	51.8%
	3차	1.2%	1.7%	45.1%	52.1%
	1·3차 간 증감	↑ 0.70%	↓ 1.50%	↓ 12.50%	↑ 13.30%

2. 청소년 이용자의 성찰 일지를 통한 성과 분석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의 성찰일지를 분석하였고, 청소년 친화적 공간, 대인관계 형성 및 기술의 습득, 자기성장 그리고 진로탐색 및 결정이라는 4개의 주제와 11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7>과 같다.

〈표 4-7〉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자의 성찰일지 분석결과

구분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환경적 영역	청소년 친화적 공간	자유로운 이용	시간제약 없이 이용
			자유롭게 이용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
			휴식을 취함
	경제적 부담 감소		편하게 보냄
			무료이용
			무료체험
			금전적 여유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다양한 체험
			마음대로 골라서 참여
			하고 싶은 활동 참여
대인관계 형성 및 기술 습득	새로운 관계 형성	쉽게 접하기 힘든 활동 참여	
		매달 새로운 활동	
		매번 다른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기술		새로운 친구
			새롭게 만남
			다양한 사람
			유대관계 형성
		친해짐	
		친화력	
		협력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	
			대화를 나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음

〈표 IV-7〉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참여자의 성찰일지 분석결과 (계속)

구분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개인적 영역	자기성장	삶의 만족	재미와 흥미	
			즐거움	
			밝아진 모습	
			활기찬 삶	
			뿌듯함	
			보람	
			성취감	
			스트레스 해소	
			주도성	자신감
				도전의식
	스스로			
	책임감			
	긍정적 생각			
	긍정적으로 변화			
	진로탐색 및 결정	자기탐색		강점 이해
				적성 찾음
				부족함을 배움
				모르는 것을 배움
			새로운 걸 알아감	
		진로탐색	진로 고민	
구체적인 진로생각				
진로를 알아감				
진로결정			꿈을 키움	
			장래 희망	

가. 청소년 친화적 공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운영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체험과 경험의 장이 되고 있었다. 즉,

전용시간·요일제 운영으로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1) 청소년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운영으로 청소년의 공간이 확보되고 있었다. 청소년은 청소년 시설을 시간의 제약 없이 이용하고 언제든지 휴식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고 제시하였다.

‘공간을 시간 제약 없이 오래오래 사용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다.’(참여자 5)

‘센터 내 모든 공간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참여자 27)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있어 좋았습니다.’(참여자 8)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소파에 기대서 휴식도 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참여자 9)

‘...시원하고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참여자 17)

2) 청소년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감소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되지만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활동거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시설도 깔끔하고 쾌적해서 좋았다.’(참여자 23)

‘선뜻 참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참여자 5)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며 하니깐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참여자 23)

‘관심 있는 활동들을 심적이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음.’(참여자 10)

3) 청소년시설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활동의 마련이었다. 청소년들은 전용시간·요일제 운영으로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좋았다는 의견이었고, 다양한 활동 제공은 청소년이 원하는 그리고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참여자 19)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청소년센터 전체 프로

- 그랩실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신기했다.’(참여자 16)
- ‘해보고 싶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참여자 21)
- ‘쉽게 접하기 힘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았다.’(참여자 6)
- ‘매달 새로운 주제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보낼 수 있어서 재밌습니다.’(참여자 26)
- ‘단순히 한가지의 활동이 아니라 매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참여자 28)

나. 대인관계 형성 및 기술 습득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형성과 대인관계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등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계에서 청소년은 친화력, 협력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과 타인 이해 등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1) 새로운 관계 형성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청소년활동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 좋았다.’(참여자 7)
- ‘새롭게 만난 타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 및 관심 가는 활동에 참여한 것이 즐거웠다.’(참여자 3)

2) 대인관계 기술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사교성이 증진되고, 함께 협력하여 결과물을 창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 ‘친화력이 더 좋아진 것 같고 친해진 사람이 많아서 좋았다.’(참여자 24)
-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같은 청소년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나보다 어린친구들을 더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2)
- ‘활동을 통해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았다.’(참여자 255)
- ‘사람들과 대화하고 포용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던 점 그 자체가 굉장

장히 즐거웠던 것 같다.’(참여자 1)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게 좋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점이 좋았다.’(참여자 12)

다. 자기성장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삶의 활기를 느낄 뿐 아니라 뿌듯함 및 보람과 같은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감을 충족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주도적인 삶으로의 태도가 변화하였고, 삶의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1) 삶의 만족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 참여로 삶의 재미와 흥미를 찾으면서 즐거움과 소중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활동을 통해 보람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일제를 통해 재미와 흥미를 찾았습니다.’(참여자 14)

‘내가 더욱 밝아진 기분을 느꼈습니다.’(참여자 15)

‘내 자신이 무언가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느끼면서 피폐함과 점점 멀어지면 활기를 되찾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점이라고 생각된다.’(참여자 4)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참여자 4)

‘힘들긴 했지만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참여자 11)

‘다 만들었을 때 성취감과 방에 전시해둘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참여자 18)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 좋고 친구들을 만나서 활동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참여자 20)

2) 주도성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도전의식과 책임감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응답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는 등 주도적인 삶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차 경험을 쌓는 모습을 보고 성취감과 자신감이 늘었다.’(참여자 2)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참여자 13)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고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 같다.’(참여자 20)

‘관심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다.’(참여자 8)

‘책임감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다.’(참여자 11)

3)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나 역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참여자 1)

‘좀 더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참여자 11)

‘나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참여자 22)

라. 진로탐색 및 결정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적성을 찾는 기회, 그리고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는 등 자기탐색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시간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통해 진로탐색으로 이어져 나갔다. 나아가 꿈과 장래희망을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진로결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1) 자기탐색

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 탐색, 좋아하는 것과 강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나의 적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참여자 19)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강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참여자 13)

‘부족한 걸 좀 더 배우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참여자 10)

‘모르는 것을 배우고 직접 찾아보고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참여자 21)

‘새로운 길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참여자 21)

2) 진로탐색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더 많아졌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참여자 25)

‘진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진로를 위해 조금씩 무언가를 하게 되었다.’(참여자 21)

‘진로에 대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참여자 2)

‘내 진로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참여자 8)

3) 진로결정

자기탐색과 진로탐색으로 자신의 꿈과 장래희망이라는 목표가 설정되면서 진로결정의 경험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꿈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참여자 21)

‘꿈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많았던 거 같다.’(참여자 16)

‘나도 몰랐던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음으로써 장래희망이 생겨서 도움이 되었다.’(참여자 3)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한 실천적 및 정책적 변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립청소년센터 중 3개의 청소년센터가 전용시간·요일제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으며, 3차례의 조사에 참여한 남녀 청소년은 총 3,534명이었다.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자의 하루 이용시간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시간 이상에서 3시간미만’은 1차 14.2%, 2차 21.7%, 3차 24.0%였으며, ‘3시간이상에서 4시간미만’은 1차 6.7%, 2차 13.8%, 3차 15.5%로 나타나,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참여 청소년들은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더 많은 시간

을 청소년센터에서 보냈다.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변화 추이에서 ‘매우 만족함’이 1차 38.6%에서 2차 49.8%로, ‘만족함’이 2차 46.4%에서 3차 48.1%로 높아졌다.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 청소년들이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2차에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고,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도가 높아졌다. 프로그램 이용시간과 만족도의 증가는 청소년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횟수와 만족도는 청소년기 스마트폰과의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17].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재참여 의사의 변화 추이도 ‘있음’이 1차 88.2%, 2차 93.1%, 3차 93.9%로 나타났다. 청소년센터의 전용시간 · 요일제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의 경험이 나타난다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개인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의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개인적 영역의 여가시간 활용, 다양한 경험 쌓기, 진로 · 적성 발견, 스트레스 해소, 삶의 행복 증진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참여로 청소년의 개인적 영역 부분은 시범사업 운영 초기보다 2차에서 ‘매우 도움이 됨’이 증가하였고, 3차에서 ‘매우 도움이 됨’이 미비하게 감소하면서 ‘도움이 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가 행복감, 관계형성, 진로역량 등에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하다[1, 3, 4]. 또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 프로그램 참여로 부모와의 관계 개선, 대인관계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청소년 시설의 이해도에 대한 환경적 영역의 변화 추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이 개인적 영역과 더불어 환경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 성찰일지를 통해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의 성과분석을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 형성 및 기술 습득 그리고 자기성장의 기회와 진로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활동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삶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위한 긍정적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시기에 청소년활동은 건강한 발달과 균형적인 성장지원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이 또래관계 향상, 자신감, 진로자신감, 자기성장과 도전의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18]와 진로성숙도[14] 그리고 삶의 만족[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가 중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청소년 친화적 공간 조성이다. 전용시간 · 요일제를 운영하는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그리고 과도한 학업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의 제약과 한계가 있을지라도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및 성찰일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청소년센터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에 대한 연차별 확대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전부터 서울시 청소년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센터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자립형 청소년센터의 수익구조가 무너지면서 청소년센터의 운영모델 및 기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범운영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수익사업 운영형태의 청소년센터에서 벗어나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센터로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립형 청소년센터 전체에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가 연차별로 확대 및 보급된다면 청소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청소년센터 간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추후에 동일한 예산에 따라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 내용 및 성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청소년센터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에 대한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최소 운영과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예산 사용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는 센터별로 지역특성 및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전체적인 운영방향과 사업형태는 동일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전용시간·요일제를 관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이 필요하며, 청소년 대상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일반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 및 청소년시설의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방과후 여가시간에 대한 공적 서비스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센터는 방과 후 시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이 가능하며, 가정의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청소년의 자기성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청소년센터는 주말과 방과후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활동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대인관계 형성, 스트레스 해소, 진로 및 적성 발견, 부모와의 관계 개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청소년센터에서는 단순 체험을 넘어 신체활동, 진로활동, 문화예술활동, 청소년 주도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센터에서는 전용시간·요일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전용시간·요일제의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모든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신규 사업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은 청소년활동의 참여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개발에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그리고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센터의 전용시간 · 요일제 운영과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 중심의 전용시간 · 요일제 운영에 대한 시범운영과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2021년에 실시된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는 서울시청소년센터 중에서도 단 3곳만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차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 요일제를 확대하여 이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종단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변화 및 성장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1.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김평화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Lim HJ, Mon HY, Jeong JH, Kim PH (2018). A Study on youth activity survey V.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 문성호, 박승곤, 정지윤, 박지원, 노지혜 (2018).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Moon SH, Park SK, Jeong, JP, Park, JW, Noh, JH (2018). 2018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and need survey. Seoul: Korean Youth Work Agency)
3. 김한솔, 장여옥 (2019).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5-22. (Kim HS, Chang YO (2019). Analysis of difference in core competency of youth activ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in autonomous club activities.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5(3), 5-22)
4. 김영서, 홍세희 (2021).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공동체의식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조사연구, 22(1), 91-125. (Kim, YS, Hong, SH (2021).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youth activities and examining differences in sense of community and happi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Survey Research, 22(1), 91-125)
5.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2021). 청소년 전용시간·요일제 내부자료. (The Seoul Association of Youth Center (2021). Internal data for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6.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청소년시설 이용률 현황 (2020).
<https://opengov.seoul.go.kr/public/view/?nid=22741544>에서 2021년 12월 27일 인출.
7.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청소년시설 이용률 현황 (2018).
<https://opengov.seoul.go.kr/public/view/?nid=18310691>에서 2021년 12월 27일 인출.
8. 시립성북청소년센터 (2021). 청소년 전용시간·요일제 내부자료. (Seongbuk Youth Center (2021). Internal data for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9. 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1). 청소년 전용시간·요일제 내부자료. (Gangbuk Youth Center (2021). Internal data for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10. 시립은평청소년센터 (2021). 청소년 전용시간·요일제 내부자료. (Eunpyeong Youth Center (2021). Internal data for youth center exclusive hours and daily)
11. 이응택, 오승근 (2020). 청소년기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1(1), 289-315. (Lee ET, Oh SG (2020). The mediating effects of a sense of community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tial activities and school adaptation amongst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31(1), 289-315)
12. 김민선, 손병덕 (2019).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중

- 단 매개효과: 긍정적 청소년발달(PYD) 이론의 발달자산모형 적용. 청소년학연구, 26(12), 425-453. (Kim MS, Sohn BD (2019)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ctivity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ation in Adolescents: Application of Development Asset Model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PYD)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12), 425-453)
13. 최창욱, 성은모, 남화성, 이선근, 정은옥, 장미희, 김미영, 문지혜 (2018).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성남시청소년재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hoi CW, Sung EM, Nam HS, Lee SK, Jeong EM, Jang MH, Kim MY, Moon JH (2018). A study on 2018 Seongnam city youth survey.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4. 원정은, 정혜원 (2019).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 효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1), 5-37. (Won JE, Chung HW (2019). A study of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30(1), 5-37)
 15. 손인봉, 김태형 (2021).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359-368. (Son IB, Kim TH (2021). Mediation Analysis of Sense of Community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21(6), 359-368)
 16.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개정판). 서울: 박영사. (Yoo KW, Jeong JW, Kim YS, Kim HB (2018).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2nd ed.). Seoul: Park Young Story Publisher)
 17. 이응택, 오승근 (2021). 청소년 체험활동과 스마트폰과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2(4), 35-63. (Lee ET, Oh SG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experience activitie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Studies on Korean Youth, 32(4), 35-63)
 18. 정재민, 조창호 (2016). 청소년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청소년문화포럼, 47, 49-78. (Jung JM, Cho CH (2016). A Qualitative Study on the Youth Activities: What Youth Experience from the activities of Korea Achievement Award?. Research Center for Korea Youth Culture, 47, 49-78)